

여수시 본 청사 별관 증축 '속도'

시의회, 증축 원안 가결...주차장 부지에 지상 6층 규모 건립 다음달 설계비 등 예산 편성...2026년 착공 2028년 입주 목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하나가 된 '3여 통합' 이후 25년간 지지부진한 여수시 본 청사 별관 증축이 속도를 내게 됐다.

여수시는 지난 24일 열린 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본 청사 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여수시의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공무원 수가 늘었지만, 근무 공간이 턱없이 좁은 문제가 발생해왔다.

여수 본 청사 면적은 법정 기준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8개 청사가 분리 운영돼 시민의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는 별관을 증

축한 '양 청사 체제'를 내세웠다. 이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해수청) 매입을 통해 여서청사를 복원해 흡수된 청사를 수용하는 방안이다.

여수시는 국회의원 면담과 해양수산부 협의 등을 거쳐 별관 증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쳤다.

본 청사 별관은 현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에 6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1만 7492㎡(5291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에 본 청사 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여수시는 남은 행정절차 추

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오는 7월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8월 설계 공모를 거쳐 2026년 착공과 2028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여서청사 매입 후 여수해수청은 신복합이나 여수세계박람회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본 청사 별관을 증축해 쾌적한 사무 공간을 마련, 행정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별관은 주민 편의 시설을 포함한 시민 중심의 '열린 청사'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은 여수시민 화합의 시작"이라며 "큰 결단과 협의로 동참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해달라"

8개 농업인단체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안정적 생산 위해 시급"

광양지역 8개 농업인 단체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과 구례, 신안 3곳에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가 없는 점을 들어 '광양사무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와 광양 7개 농업인 단체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국회에 광양사무소 설치를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8개 단체는 "농관원 광양사무소가 지난 1998년 7월 문을 닫은 이후 지역 농업인들은 업무를 보기 위해 순천사무소까지 찾아가야 한다"며 "광양은 농업 비중이 큰데도 농관원 지역사무소가 없어 수십 년째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

8개 단체에 따르면 광양시의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284ha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크다. 농업인 수는 1만 5026명으로 전남 9번째를 차지했다.

이거욱 한국후계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 회장은 "광양은 도농복합도시로 인구의 10%가 농업인임에도 그동안 농업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농업인단체와 힘을 모아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전남에서는 광양을 포함해 구례, 신안 3개 시·군만 농관원 지역사무소가 없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포슬포슬~ 맛 좋은 '보성 햇감자' 출하 한창

1000여 농가 1만4000t 수확 예정 전국 출하량의 50%...생산량 1위



보성군 화천면의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햇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봄 감자 주산지 보성에서 햇감자 수확이 한창이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에서는 1000여 농가가 930ha 규모 농지에서 이달 말까지 1만4000t의 봄 감자를 수확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성 봄 감자 출하량은 전국의 50%를 차지하며 생산량 1위를 기록했다.

올해 보성 감자 농가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출하를 마친다.

보성감자는 미네랄이 풍부한 특량만 일대 해안가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다. 포슬포슬한 식감과 짭짤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화천면과 득량면 일대는 배수가 잘돼 감자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보성 농가들은 오랜 경험과 기술로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추백'과 '금선' 씨감자를 직접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보성 농가들은 대표 품종인 '수미'와 새 품종 '금선', '요리용 특화 '추백', 가공용 '두백' '대서' 등 다양한 품종의 감자를 재배하고 있다.

보성군은 식감과 품미가 뛰어난 새 품종 '금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최근 현장 평가회를 열어 작황, 내병성, 수량성, 품질, 식미 등을 비교했다.

올해 수확한 제철 보성감자는 보성군 온라인 농산물직거래장터인 '보성몰'(boseongmall.co.kr)에서도 만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하는 감자 생산을 목표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종 감자를 개발하고 고품질의 씨감자를 공급하겠다"며 "친환경 재배 면적도 점차 늘려 보성감자의 명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서 하루 최대 15t 국산 밀가루 생산

'밀산업 벨리화 시범단지' 1년 6개월만에 완공

우리 밀가루를 하루 최대 15t 생산할 수 있는 '밀산업 벨리화 시범단지'가 구례에 조성됐다.

구례군은 최근 농촌진흥청 식량 산업 분야 주요 기술 보급 사업 '밀산업 벨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 일대에서 지난 2022년 12월 추진해 1년 6개월여 만에 완성됐다.

'밀산업 벨리화 시범단지'는 국비 15억원·군비

15억원을 투입해 구축됐다. 이곳은 밀 전문 제분 시설을 갖춰 하루 최대 15t의 국산 밀가루를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중순에는 전문 제분 시설이 준공됐고, 같은 달 17-19일 사흘간 밀 축제를 열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국립식량과학원 관계자 등이 제분 시설을 찾아 국산 밀 산업 발전을 논의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 품은 '그랜드파크 자이'

GS건설, 견본주택 오픈...997가구 공급 2027년 7월 입주

GS건설은 순천 풍덕지구에 건립하는 '순천 그랜드파크 자이' 견본주택을 지난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순천 그랜드파크 자이'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블록(풍덕동 327-3번지)에 지하 2층 지상·최고 29층 9개 동 규모로 건립된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주변인 풍덕동 305번지(풍덕중학교 인근)에 들어섰다. 입주는 2027년 7월 예정이다.

전용면적 84~206㎡ 총 997가구로,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445가구 ▲84㎡B 136가구 ▲102㎡ 86가구 ▲110㎡ 106가구 ▲115㎡ 58가구 ▲130㎡A 110가구 ▲130㎡B 54가구 ▲206㎡P 2가구 등이다.

모든 유형은 일반 분양된다. 오는 24일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특별 공급을 시작한다. 25일에는 1순위(해당·기타지역) 청약과 받고, 오는 7월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7월15-17일 사흘간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순천에 들어서는 첫 '자이 아파트'인 '순천 그랜드파크 자이'는 커튼월과 유니자이아트월, 유리난간 등으로 외관을 고급화했다.



순천시 풍덕동에 들어서는 '순천 그랜드파크 자이' 투시도.

입주민 편의를 위한 '클럽 자이안'에는 순천의 첫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순천만국가정원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은 작은 도서관과 골프 연습장, 사우나, 체력단력실, 카페 등을 갖췄다.

아파트 인근에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이 있으며, KTX·SRT순천역은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길을 거리는 데는 홈플러스, 이마트, 메가박스 등 대형 판매시설이 있다. 풍덕초, 풍덕중 등으로도 보 통학을 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순천만 역~쉼터 1.3km '맨발 길' 조성

8월까지 2억5000만원 투입

순천만 습지 순천만역에서 순천만 쉼터까지 길이 1.3km의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된다.

순천시는 시비 2억5000만원을 들여 오는 8월까지 '순천만역~쉼터방향 맨발 걷기 길' 조성 공사를

를 마칠 계획이다. 지난달 실시설계를 마친 뒤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한다.

맨발 걷기 길이 마련되는 구간은 순천만역에서 순천만을 연결하는 갈대열차길(1.3km)이다.

갈대열차길 양쪽으로는 소설가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배경이었던 순천만과 낭뜨쉼터, 복원 습

지가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맨발로 느끼게 걸으며 느낄 수 있도록 갈대열차길의 폭을 조정하고 맨발 길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만 습지에는 장산마을로 이어지는 4.5km 길이 '순천만 어싱길'(맨발 길)이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순천만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추천량

1회 1봉지, 1일 2회

120